

응급 환자 초기 관리

Dean R, Mulligan J(2009) 응급환자의 초기 관리. *Nursing Standard*. 24, 5, 35-41. 게시일: 2009년 7월 8일

요약

응급구조의 성공은 쓸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 할 수 있는 능력과 의료전문인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가능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달려있다. 8편의 시리즈 중 2번째인 이 기사는 어떻게 응급환자를 사정하고 안정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응급상황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응급의료와 관련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 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들을 이용하여 환자, 환자의 주변인, 구조자의 잠재적 위험 사정에 대한 의학적 접근을 제시할 것이다.

저자

Rick Dean씨는 North Bristol NHS Trust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제 간호사로, St John Ambulance의 clinical governance officer이자 clinical governance 팀의 의장이기도 하다.

Email: jmulliga@redcross.org.uk

키워드

사고와 응급상황, 응급구조, 리더십, 위험사정과 관리

위의 키워드들은 British Nursing Index의 제목들이다. 이 기사는 이중 검정법을 거쳤다. 저자와 연구기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Nursing Standard* 홈페이지 'nursingstandard.rcnpublishing.co.uk' 를 방문하라. 이번 기사와 관련된 문헌을 더 필요하다면 우리의 온라인 문서보관소를 방문하여 위의 키워드 검색을 하면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효과적인 응급구조를 위해선 의학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응급상황을 관리할 능력이 필요하다. 미리 정해진 의학적 정책과 절차들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에게 도움을 준다. 병원에서 보통 동료들이 도와주며, 임상전문가들의 간호를 받는 데는 몇 분 정도의 시간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위급한 응급구조상황 시엔 '관리'는 얼마나 최신의 의료정책을 잘 알고 있느냐가 아닌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여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과 시기 적절한 결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또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자원이 한정 되고, 응급구조키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칠 수도 있다. 그

라서 긴급 상황 시 임기응변 능력도 중요하다.

이번 기사에선 환자와 응급상황의 초기 사정에 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 ▶ 다친 사람 사정의 기초
- ▶ 여러 스킬과 지식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응급상황을 잘 관리할 것인가
- ▶ 사고현장에 접근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 ▶ 응급구조 요청시 제공해야 할 정보들
- ▶ 응급환자 주변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환자 사정

응급상황 현장에 도착했을 시, 환자들이 몇 명인지 확인하라. 만약 한 명 이상이라면, 의식이 없을지도 모르는 가장 조용한 환자부터 보라. 환자의 의식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환자가 금방 의식을 되찾고 자극에 반응할 수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어떠한 반응도 없다면 그 환자를 가장 우선 사정해야만 한다.

최우선 사정

최우선 사정(Box 1)의 목표는 환자가 의식유무를 확인하고 어떤 응급구조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환자의 의식이 없다고 의심되면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눈을 뜨실 수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라. 환자의 이름을 안다면 이름을 불러보라. 자극을 주기 위해 부드럽게 환자의 어깨를 흔드는 것도 도움이 된다.

Box 1

최우선 사정

DANGER(D) 상황을 사정하라

- ▶ 구조자 자신과 환자, 그리고 주변인들의 위험을 확인하라.
- ▶ 구조자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라.
- ▶ 구조자 자신의 안전을 가장 우선하라.

RESPONSE(R) 환자를 사정하라

환자의 의식유무를 확실히 확인하라:

- ▶ 환자가 몸에 손을 대거나 어깨를 흔드는 자극에 반응하는지 확인하라.
-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라.
- ▶ 눈을 떠보라는 식의 주문을 해보라.

만약 반응이 있다면:

- ▶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지 않다면 환자를 움직이지 말고 그 상태로 둔다.
- ▶ 치명적인 부상이 있는지 확인하라.
- ▶ 필요하다면 구조를 요청하라.

만약 반응이 없다면:

- ▶ 소리쳐서 도움을 요청하라.
- ▶ 환자를 움직이지 말고 그 상태로 두고 기도를 확보하라.

AIRWAY(A)

- ▶ 환자의 이마에 한 손을 올린다.
- ▶ 부드럽게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혀라.
- ▶ 입은 밑으로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다.
- ▶ 다른 손의 손가락 끝을 환자의 턱에 댄다.
- ▶ 턱을 들어올린다.

BREATHING(B)

- ▶ 기도가 열린 상태를 유지한다.
- ▶ 정상 호흡음이 있는지 보고 듣고 느껴라.
- ▶ 가슴의 움직임은 보고, 소리를 듣고, 당신의 볼로 숨 쉴 때의 움직임은 느껴라.
- ▶ 이 과정을 10초 이상 넘기지 말라.
- ▶ 환자의 정상호흡 유무에 대한 결론을 내려라.

만약 환자가 숨을 쉬고 있다면:

- ▶ 치명적인 부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처치를 하라.
- ▶ 환자를 recovery position을 취하게 하라.
- ▶ 999/122에 연락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라.
- ▶ 맥박과 호흡수, 그리고 의식수준을 관찰하고 기록하라.

만약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않는다면:

- ▶ 다른 도움자가 999/122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하도록 한다.
- ▶ 물에 빠져 생긴 상황이 아니며 주위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직접 999/122에 연락하도록 한다.
- ▶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하라.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

- ▶ 무릎을 구부려 환자의 가슴높이까지 하체를 낮춘다.

- ▶ 환자 가슴의 정중앙에 손바닥의 볼록한 부분을 위치시킨다.
- ▶ 나머지 다른 한 손을 그 위에 올린다. 손가락이 서로 맞물리게 하여 두 손을 단단히 고정한다.
- ▶ 몸을 환자 쪽으로 기울이고 팔은 곧게 펴야 하며, 흉골 위를 수직으로 4~5cm 깊이로 압박한다.
- ▶ 가슴에 손을 떼지 않고 환자에게 가한 압박을 푼다.
- ▶ 가슴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 후 다시 다음 압박을 가한다.
- ▶ 분당 100회의 속도로 가슴을 30번 압박한다.

환자의 머리를 움직여 기도가 개방되도록 한다.

- ▶ 한 손을 이마에 대고 다른 손의 두 손가락은 턱 끝에 댄다.
- ▶ 검지와 엄지로 환자의 코를 집게로 집듯이 막는다.
- ▶ 환자의 입을 늘어뜨려 열리도록 한다.

큰 숨을 쉬게 하라.

- ▶ 당신의 입을 벌려 입술로 환자의 입 주위를 감싼다. 완전히 환자의 입을 감싸야 한다.
- ▶ 환자의 가슴이 위로 올라올 때까지 계속 환자의 입 안으로 공기를 불어넣는다. 대략 1초 정도 걸린다.
- ▶ head-tilt & chin-lift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입에서 당신의 입을 떼 후, 가슴이 내려가는지 본다.
- ▶ 다시 환자에게 숨을 불어넣는다.
- ▶ 지체 없이 다시 30회의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 ▶ 30회의 가슴압박과 이어지는 2회의 구조자 숨 불어넣기의 과정을 계속 한다.

응급구조가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거나, 환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호흡하거나, 당신이 너무 지쳐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을 때까지 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라.

환자의 의식이 없다면, 그 사람의 기도 유지가 최우선이다. 더불어 누군가를 시켜 앰블런스나 경찰 혹은 소방차 같은 구조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도 개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대고 부드럽게 머리를 뒤로 젖힌다(Figure 1). 입 안에 기도 개방을 방해할 이물질이 들어있는지 들여다 보라. 그리고 나서 두 손가락을 턱 아래 대고 들어올려라. 턱을 들어 올리는 것은 목구멍의 뒤쪽으로 갈 수 있는 혀를 움직여 기도를 열어준다(Figure 2). 기도가 열리면 대상자가 숨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주위가 매우 시끄럽거나 대상자가 두툼한 옷을 착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환자의 호흡을 확인하는데 최대 10초간의 시간을 쓸 수 있다. 이때 구조자는 자신의 얼굴을 대상자의 얼굴 옆 가까이에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가슴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호흡과 관련된 어떠한 소리든지 듣고, 자신의 뺨으로 대상자의 호흡을 느껴야 한다.

대상자가 정상 호흡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 체순환에 대해 생각하라. 그리고 심한 출혈이나 골절, 저혈당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이 있는지 확인하라. 이런 심각한 부상들에 대한 인지와 관리에 대한 안내는 다음 편 기사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대상자를 회복자세(Figure 3)로 취하기 전에 그가 목에 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체 안의 부상은 보통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선 상처의 메커니즘을 기억하라. 대상자가 움직이는 자동차에서 튕겨져 나갔는가? 그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가? 자동차를 타고 고속으로 달리던 도중 어떤 정지된 물체와의 충돌로 인해 상처를 입었는가? 만약 대상자가 두부나 척추의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를 회복

자세로 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대신 기도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하악견인법(jaw thrust technique)'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의 최우선 목표는 기도 개방 유지와 척추의 추가 손상을 막는 것이다.

만약 환자를 움직일 필요가 있고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통나무 굴리기법(log-roll technique)'을 사용하여 척추를 보호할 수 있다(Box 2). 종종 응급구조 요청을 위해 대상자를 홀로 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대상자가 스스로 기도 개방을 유지할 수 없다면, 홀로 두기 전에 회복자세로 취해주어야 한다.

Box 2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움직이기 위한 통나무 굴리기법(log-roll technique)

1. 대상자의 머리와 목을 지지하면서, 주위의 도움자에게 대상자의 사지를 곧게 펴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2. 3명의 구조자가 대상자의 한쪽에 서서 자신들의 방향으로 그를 끌도록 한다. 다리를 잡고 있는 구조자는 다리의 말단부분에 손을 위치해야 하며, 중간에 있는 구조자는 손을 둔부와 허벅지 사이에 위치 하도록 한다.
3. 머리와 목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자가 환자 이동을 위한 구령을 낸다. 구조자들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잘 움직이도록 지도해야 한다. 머리와 가슴, 다리가 일직선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주의 해야 한다. 다리의 상부쪽은 척추가 곧게 펴지게 하기 위해 조금 더 들어야 한다.

후순위 사정

최우선 사정이 끝나고 추가로 필요한 응급구조가 없다면 후순위 사정을 진행하라. 이것은 조직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정하는 것으로, 구조자가 최우선 사정에 놓쳤던 부상이나 질병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후순위 사정은 대상자의 히스토리를 조사하고, 붓거나 멍들거나 신체의 일부분의 변형이나 출혈 같은 부상과 질병의 징후와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 사정의 목표는 환자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하여 정확한 응급간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언제 발생했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대상자와 현장의 주변인들에게 파악해보라. 그리고 대상자의 기분이 어떤지 파악하라. 또 그가 전에 비슷한 사고를 겪은 과거력이 있는지 살펴보라.

현재 대상자에 대한 다른 고려사항은 없는가? 대상자는 술에 취한 상태인가? 만약 그렇다면 언제부터 마셨는가? 대상자의 통증 유무를 파악하고 만약 있다면 정확히 어느 부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호흡도 확인해보라. 주기적으로 맥박을 체크하고 피부색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라. 피부가 차갑고 끈적한지 느껴보라.

대상자의 부상과 관련된 어떠한 활력정보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살이 조사해야 한다.

머리-발끝 사정

머리에서부터 시작하라. 머리에서 목으로 출혈이 있는지, 두개 함몰은 보이는지 확인하라. 두개 함몰은 종종 골절을 의미할 수 있다. 혈액이나 다른 분비물이 입과 코, 귀에서 나오는지 주시하라. 대상자에게 출혈, 멍, 눈 안의 이물질이 있는지 주시하라. 동공을 관찰하여 양쪽의 크기가 다른지 사정하라. 만약 차이가 있

다면 이것은 머리 부상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입 안과 주위에 붓기, 출혈, 멍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의 내쉬는 숨의 냄새를 맡고 알코올이나 케톤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라. 목 주위에 환자에 대한 의학 경고 목걸이나 기관절개술의 흔적을 찾아라. 쇄골 주위에 어떤 골절이 있는지 보라. 가슴과 등, 복부를 사정하여 멍이나 부상이 있는지 확인하라. 환자가 허리에 통증이나 얼얼함이나 욕신거림이 있는가?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 그리고 의학적 또는 비의학적 이유에 의해 환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금기가 아니라면 대상자를 옮기는 것은 피해야 한다.

환자에게 큰 호흡을 하도록 하여 비대칭적 가슴 움직임을 관찰해야 한다. 숨을 쉴 때 시큰거리는 소리가 있는지 잘 들어야 한다. 복부에 멍이나 출혈 또는 부종이 있는지 잘 보아야 하며 복부강직이나 압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골반의 변형이 있는지 보라. 사지에 멍, 출혈, 부종 혹은 변형이 있는지 확인하라. 바늘자국도 유심히 보아야 한다. 그것은 제1형 당뇨 환자 혹은 정맥주사를 꾸준히 맞는 환자일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손목에 의학정보 팔지를 착용하고 있는지도 봐야 하며, 순환부전을 의미하는 손가락 끝과 손톱의 청색증이 있는지 확인하라.

더불어 이러한 사정을 진행하는 동안 구조자는 대상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안위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응급상황 관리

응급상황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구조 장비와 구조자가 현장에 존재하며 응급상황에 대응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구조자에게 병원 밖에서 벌어지는 응급상황을 만났을 때 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인지하고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많은 구조자들이 이런 경우 당황할 수 있지만 상황을 즉시 제어하는 것이 대상자에게 필수적이다.

어디서 벌어졌든 응급상황 관리 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한 행동지침은 Box 3에 기술해 놓았다.

이번 기사에서 상기해야 할 것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며 응급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다.

- ▶ 가능한 위험의 규명, 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정의 필요성
- ▶ 119 같은 응급구조기관에게 도움 요청 시 가장 적절한 정보 제공

이 시리즈 기사를 쓰기 전 *Nursing Standard*를 통해 많은 독자들이 '간호사가 병원 밖에서 응급구조를 하게 되는 실제 케이스 서술'에 대한 많은 요청이 있었다. 이것은 간호사와 관련된 응급구조의 유형과 사례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시나리오 1(Box 4)에 실제 케이스를 기술하였다.

Box 3

응급상황시 행동 지침

- ▶ 상황을 파악하라. 응급구조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한 것과 구조자 자신과 대상자에게 처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신속하고 조용히 파악해야 한다.

- ▶ 주변 상황의 안전을 확보하라. 대상자를 위험으로부터 멀리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응급구조자는 대상자의 한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 응급구조를 제공하라. 치료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사고자들을 사정하고 생명이 위급한 사람부터 돌보아야 한다.

Box 4

시나리오 1

제가 간질성 발작을 하고 있는 어린 소녀를 만났을 때, 전 그녀를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주위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아스팔트 바닥에 있는 그녀의 머리를 코트와 점퍼로 감싸서 보호했습니다. 전 그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앰블런스를 부르도록 요청했고, 그녀의 의식을 사정하면서 그녀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발생한 상황에 대해 알렸습니다.

전 또한 어느 병원의 응급의료전문가에게 그녀를 인계할 때 응급구조자와 그녀의 부모들 사이의 대화도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앰블런스 정책이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환자를 먼저 이송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간질성 발작은 다발성이라 그녀를 회복자세(recovery position)로 오랫동안 취하게 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 그녀와 같이 있던 목격자들에게도 정신적 안위를 제공해야 해서 매우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효과적인 응급구조 제공의 목표는 상황에 따라 제한적인 사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전문 응급 구조사가 올 때까지 대상자를 가능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Dean 2005). 병원 현장에선 정형화된 반응을 하도록 하는 여러 정책과 지침뿐만 아니라 전문적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와 동료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일하는 병원 밖에선 거기에 맞는 응급구조 기술들을 익힐 필요가 있다.

위험 사정

사고가 발생하는 곳에선 의례 사람들은 달려가서 도움을 제공하려고 한다. 하지만 거기엔 분명 사고자 뿐만 아니라 구조자에게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형태의 구조를 제공하기 전에, 장소를 불문하고 다음의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

- ▶ 무작정 사고 현장에 달려들지 말라. 멈추고 생각하고 미리 해야 할 것들을 머리 속에 정리하자. 위험상황 시 특히 신속한 위험 사정을 하고 그 이벤트의 본질을 파악할 때이다.
- ▶ 응급의료가 도착하기 전 까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상자를 옮기려고 하지 말라.
- ▶ 모든 사고자들을 대할 때 그들을 존중하라. 어떤 행위를 시행할 경우 미리 대상자에게 허락을 청하고 미리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라.

훈련이 잘 된 응급구조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진 간호사의 예를 시나리오 2(Box 5)에서 기술한다.

Box 5

시나리오 2

시내를 걷고 있는 김 간호사. 그녀가 길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는 한 무리를 지나친다. 이후 김 간호사가 취하는 행동들은 의료인과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의료인의 역할 - 사고자와 그 옆의 친지들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정하기

1. 잠재적 위험: 사고자는 한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추가의 부상 위험은 없다.
2. 최우선 사정: 위험사정을 통한 안전을 확인하고 자극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을 살핀다. 동시에 적절한 기본적 응급간호를 하면서 진행한다.
3. 후순위 사정: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녀의 히스토리를 사정한다. 그녀에게 당뇨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의 딸은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4. 회복자세(Recovery Position)
5.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 확인된 사람에게 아래의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라.

리더로서의 역할 - 상황을 진정시키면서 주변인들에게 적절한 응답을 얻어내는 리더로서 활약하기

6. 999/112나 주위 사람들을 시켜 도움을 요청하기.
7. 전문 응급 구조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상황을 책임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응급간호를 제공하기.
8. 정보 전달자로서 전문 응급 구조와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9. 할머니의 딸을 통해 완전한 과거력을 얻기.
10. 응급상황과 관련된 환자과 구조자 본인의 상태를 자세히 전문 응급 구조에게 알리기.
11. 앰블런스나 경찰들을 따라가기. 주변인들에게 그들의 도움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도움을 요청하기

전문 응급 의료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은 응급상황에서 간호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이상적으로 도움요청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시기적절성, 전문 응급 구조에 제공할 정보의 질과 정확성은 응급상황 대응의 유형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응급구조를 요청해야 할 곳이 반드시 앰블런스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응급 의료나 구조 서비스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응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대응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재난구조기관, 경찰서, 소방서와 멀리 떨어진 특정 지역에선 이들보단 Maritime의 전문요원이나 Royal National Lifeboat Institute 혹은 산악구조대가 더 적합하다. Table 1에 전문 구조 기관과 그들이 제

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개괄이 있다.

구조요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의 수와 부상의 정도, 위험에 대한 초기 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응급 구조를 시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구조요청 임무를 맡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어느 곳에서든 초기 사정에 대한 정보를 메모하고 옆 사람에서 그 내용을 다시 읽어 내용이 정확한 지 확인해야 한다. 그 후 현장에 있던 제 2의 사람이 구조요청을 하러 자리를 떠날 때 항상 그에게 반드시 돌아오도록 이야기 해야 한다. 응급 의료 서비스에 메시지 전달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딴 곳에서 한 사람이 멀리 구조요청을 하러 자리를 떠날 때, 나머지 한 사람은 사고자 옆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Table 1

응급 의료 서비스			
일반 서비스	전문가 서비스	공익사업 서비스	건강 증진 서비스
경찰	해안 경비대	가스	NHS Direct
소방서	구조보트 서비스	전기	NHS walk-in centers
앰불런스	산악 황야 지대 구조 광산 구조 동굴과 고지대 구조	물	Minor treatment units

구조 요청 시 고려할 사항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구조요청을 할 때 최신의 표준화된 병원 내부 전화 시스템을 통해 특정한 양식으로 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몇 개의 병원과 개인 요양 시설에선 재래의 999/112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지역 경찰들은 종종 구조 요청자에게 '심장 마비, 3병동'과 같은 식으로 위치를 말하도록 요구를 한다. 하지만 병원 임상 밖의 상황에선 그것이 다시 어렵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당신이 구조 요청을 진행한다고 가정하고 시나리오 3(Box 6)을 읽고 생각해 보자.

Box 6

시나리오 3

당신은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연석을 덮치는 차를 본다. 한 소년이 차에 치이고 극심한 고통에 소리를 지른다. 차는 연석으로부터 방향을 틀어 자전거를 탄 남자와 충돌한다. 그 남자는 땅바닥에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 주위에 있던 중년 여성은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 앉았고 많이 아파 보인다. 사

고를 낸 차량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멀리 도망쳤다.

Box 1에서 응급상황 시 구조자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그 다음에 사고의 관리에 대해 이야기 했다. 당신은 누구를 사정하고 최우선으로 처치를 할 것인가? 앰블런스에 제공할 사고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생각해보라.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 의식 불명의 자전거를 탄 남자(나이 미상)의 호흡, 외부의 출혈 징후는 안보임.
- ▶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중년 여성. 호흡이 없고 매우 흥분한 상태.
- ▶ 하지에 골절을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소년. 의식은 있고 통증이 심함.

구조 요청을 어떤 양식으로 할 것인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모든 사고자들을 빨리 사정하라.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없거나 출혈이 있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위험에 처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라.

상황을 전체적으로 사정하라. 시나리오 3에서 세 명의 사고자가 있다. 지나다니는 차량들과 행인들에 의한 위험이 그들에게 도사리고 있다. 간호사는 그 사고자들과 그들의 동행인들과 간호사 자신의 안위를 돌볼 책임이 있다. 사고 현장 주위를 가능한 한 안전하게 하는 것이 일단 필수적이다. 이때 간호사는 사고 현장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위 사람들 중 분별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에게 전문 응급 의료 서비스에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탁하라.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고 이것은 응급 상황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응급전화를 하는데,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다. 부정확한 내용이나 잘못된 사고 현장의 위치 정보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혼란과 잘못된 위치로 앰블런스를 유도하거나 상황에 부적합한 구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초기 응급전화를 최적의 구조 지원이 도착할 때 종료하는 Box 7의 과정에 따라 시작하자. Box 7의 예는 999/112 시스템을 통해 구조 서비스를 요청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Box 7

응급전화 걸기: 전문 응급 구조 서비스에 제공할 정보

- ▶ 사고자의 의식 유무와 호흡 여부를 확인하라.
- ▶ 당신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알려라. 만약 잘 모르는 곳에 있는 경우 주변의 주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 ▶ 당신의 이름을 알려라.
- ▶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언제 발생했는지 설명하라.
- ▶ 적절하다면 몇 명의 사고자가 있는지, 그들의 성(sex)과 나이 정보도 제공하라.

- ▶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을 보고하라.
- ▶ 응급 의료 서비스 측에서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통화를 종료하지 말라.

응급 의료 서비스의 시기 적절한 도움은 그들의 직원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질에 달려있다. 초기 목표는 사고자에게 간호와 처치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초기 위험 사정을 통해 나온 정보는 응급통화를 할 때 즉시 알려야 꼭 지원을 해야 할 다른 기관에도 통보가 된다. 한 예로 유독물질이 흘러나온 상황이거나 사고자가 갇혀있는 상황에선 소방서의 특수부서에서 근무하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어떤 사고인지를 알리는 것은 주요 사건이라는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것은 여러 기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래서 NHS trusted와 기타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들은 Civil Contingencies Act(시민 응급재난법 2004) 같은 계획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결론

어떠한 사고든 구조자와 사고자 그리고 주변인들에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응급 처치를 하기 전에 간호사는 자신에게 노출된 위험들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간호사들은 위험의 사정과 관리에 대한 지식과 연습은 매우 잘 되어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익숙한 근무 환경에서 벗어난 곳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에서라면 어떠한 형태의 구조나 처치를 하기 전에 충분한 위험 사정을 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종종 구조를 받고 있는 사고자가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간호사는 전문 응급 의료 서비스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사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응급구조가 항상 현장에 몇 분 안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황야나 산, 혹은 고지대 같은 곳에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상황도 생긴다. 그 대안들은 전문 구조팀이 오기 전까지 간호사가 사고자에게 닥칠 위험들을 계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안전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이번 기사를 마친다.